선지식 · 불교학 동향 등 주제 '다채'

주요 불교학단체, 신년계획 살펴보니

불교 학회, 만화 희찬 조명
구산선문 주제 학술대회도
'리캄스'로 시작한 불교학硏
불교평론, 세계불교학 분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1년 신축년 불교학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학술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선 전래 1200년을 비롯해 고승 조명, 세계불교학 동향 등 다채로운 주제의 학술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는 만화 희찬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6일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하반기에는 구하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4일에는 '한국의 불교사상' 시리즈를 보다 확장해 논하는 학술발표회도 준비 중이다.

11월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선 전래 1200주년을 맞아 '구산선문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추진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리캄스(Review KABS)'라는 새로운 학술발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발표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토론하는 것으로, 연구회는 이를 통해 담론 형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승택 회장은 "기존 학술행사 숫자를 줄이고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학계의 건전한 담론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학회는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정도 스님(동국대 종학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선 전래 12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사학회는 보조국사 지눌과 선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추진하며, 지난해에 이어 불교 전공 교재를 분석하는 연찬회도 준비 중에 있다. 5월 중에는 이천 오층석탑 환수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세계불교학연구소는 '불교와 경제의 만남'을 주제로 3월 중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대 사회의 경제문제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논한다.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올해에도 대행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6월 19일 개최한다. 또한 3월 중에는 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등재지 지원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묘공학술상,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진행된다.

불교를 대표하는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은 올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불교학의 동향을 분석하고 고찰한다. 봄호에는 '한국불교학 연구 동향과 비판'을 주제로 다루고 여름호에는 일본불교학, 겨울호에는 세계불교학 연구 동향을 다룬다. 만해축전 학술세미나를 다루는 가을호에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기술 전반에 대해 불교적으로 분석 · 논의할 예정이다.

대동영선 · 청주집 등 조선불서 한글화 완료

동국대 ABC사업단, 4종 3책 발간



조선 후기 불서들이 잇달아 현대 한글로 번역 · 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조선 후기 불서인 〈대동영선(大東詠選)〉(금명 보정/ 이상하 옮김), 〈청주집(淸珠集)〉(환공 치조/ 성재헌 옮김), 〈혼원집(混元集) · 초엄유고(草广遺稿)〉(혼원 세환 · 초엄 복초/ 윤찬호 옮김)를 출간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대동영선〉은 송광사에 주석하던 금명 보정(1861~1930)이 우리나라 역대의 뛰어난 시들을 선집(選集)한 책으로, 시대적으로는 신라 최치원으로부터 구한말 〈조선불교통사〉를 쓴 이능화(1869~1943)에 이른다. 이 책에는 중국의 시와 게송도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불교와 무관하거나 불교를 비판한 시도 포함된다. 〈삼국유사〉와 더불어 역대 고승의 문집에서 뽑은 승려들의 시가 가장 많으며 유학자의 시 역시 상당수 수록돼 있다.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이규보 · 정지상, 조선의 이황 · 이이를 들 수 있다. 중국 당송 시대 선승들의 시도 실려 있는데, 임종게(臨終偈)와 영찬(影讚)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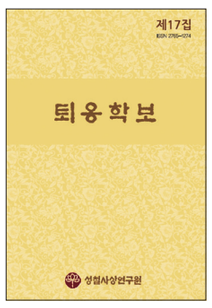
〈청주집〉은 환공 치조가 지자(智者)의 〈정토십의론(淨土十疑論)〉과 비석(飛錫)의 〈염불삼매보왕론〉 등 37종의 정토 관련 전적에서 염불수행인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구절 120칙을 선별해 엮은 책이다. 치조는 고종7년(1870) 여산 혜원의 백련사를 모델로 '정원사'라는 만일염불회를 결성한 후, 동참자를 확대하고 결사대중의 규약으로 삼고자 이 책을 편찬 간행했다. 치조가 제시한 120칙은 정토왕생의 요결이자 동시에 선종의 종지와도 일맥상통한 점이 특징이다.

〈혼원집 · 초엄유고〉는 그동안 한국불교사에서 존재가 희미했던 두 승려의 문집을 번역한 것이다. 〈혼원집〉은 조선 말기 승려 혼원 세환(1853~1889)의 문집으로 1권에는 5편의 서문과 8편의 기문이 실려 있다. 2권은 〈금강록〉 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강산 유람의 세부 일정과 그곳에서 받은 감흥을 산문과 시로 기록해 놓았다.

〈초엄유고〉는 초엄 복초(1828년경~1880년대)의 문집이다. 유불도를 두루 섭렵했으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대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초엄의 생애가 시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삼화전(三花傳)'은 자전적 우의소설로 독특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신성민 기자

중단된 백련불교학보 '퇴옹학보'로 복간돼

성철사상연구원, 17집 발간



지난 2006년 제16집으로 발행이 중단됐던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지 '백련불교학보'가 '퇴옹학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복간됐다.

성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은 최근 '백련불교학보' 복간호인 '퇴옹학보' 제17호를 발간했다.

'퇴옹학보' 제17호에는 △퇴옹 성철의 불학체계와 그 특징(조병활, 성철사상연구원) △초기불교의 중도사상과 퇴옹 성철의 이해(황순일, 동국대) △백일법문에 나타난 퇴옹 성철의 유식사상(김명우, 동의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에 나타난 '대반열반경'의 이해(조위유, 북경중의학대학 대만중의약연구기지) △왕양명과 퇴옹의 심성론 · 수행론 비교-퇴옹의 양명학 논의를 단서로 한 시론(최재목, 영남대) △현대 한국불교 고승연구의 흐름과 성찰(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게재됐다. 부록으로는 퇴옹학 논저목록이 수록됐으며, 운영회칙 · 논문작성 · 운영진 · 2020년도 학술활동 일지 등이 담겼다.

성철사상연구원 편집위원회는 "복간된 '퇴옹학보'는 성철 스님의 수행 · 사상을 조명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목표로 논문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원문을 제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남장사 괘불 · 대둔사 경장 보물된다

문화재청, 1월 7일 지정예고돼

문경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등
불교 문화재 3건은 보물 지정





보물로 지정예고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사진 왼쪽)와 구미 대둔사 경장(사진 오른쪽).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와 구미 대둔사 경장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경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등 조선시대 불교문화재 3건은 보물 지정이 확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과 '구미 대둔사 경장'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또한, '문경 봉암사 마애여래좌상' 등 조선시대 불교문화재 3건은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은 높이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 1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腹藏囊), 복장낭을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유물로 구성됐다. 불화와 함께 복장유물을 놓은 복장낭이 온전하게 일괄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남장사 괘불도는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有誠)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 명이 참여하여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17 · 18세기 제작된 괘불이 여러 번 보수를 거치는 동안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과 달리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가치로 꼽힌다.

문화재청은 "화면 중앙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된 건장한 체구의 석가여래는 마치 앞으로 걸어 나오는 듯 다른 존상들보다 돋보이게 표현했다"며 "보살과 사천왕, 용왕과 용녀 등의 모습 또한 권위적이지 않은 친근한 얼굴에 존격(尊格)에 따라 신체의 색을 달리 하여 강약을 조절한 점 등 18세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평가했다.

함께 지정 예고된 '구미 대둔사 경장'은 1630년(인조 8)에 조성된 경장(불교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다. 경장으로서는 국보 제328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품으로 경장을 비롯해 목어(木魚), 불연(불연, 의식용 가마), 촛대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됐으나, '구미 대둔사 경장'처럼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구미 대둔사 경장'은 왼쪽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를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경장은 좌우 경장의 문짝 안쪽에 각각 2구씩 그려진 사천왕상을 배치해 원래 한 쌍으로 제작돼 대웅전의 불단 좌우에 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 안쪽 불화는 제작 당시의 문양과 채색 기법을 상실하지 않고 대부분 간직하고 있어 17세기 채색기법 연구와 선묘불화(線描佛畵)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좌상과 '미륵원' 명 청동북,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을 각각 보물 제2108호, 제2109호, 제2110호로 지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과 '구미 대둔사 경장'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동행승가단



승가동행단 총재
무송스님

船過水無痕 (선과수무흔)
烏飛不留影 (오비불류영)
後悔是煩惱 (후회시번뇌)
懺悔是修行 (참회시수행)
佛意眞不俗 (불의진불속)

배가지나간물위에는흔적이남지않으며
새가날아간허공에는자취도남지않는다
후회는번뇌요뉘우침은수행이라
부처님의참뜻은속되지않는구나

새해元旦

한국불교관음조계종 종정 鶴山堂茂松

법륜불자교수회

회 장 장호경 (대구한의대학교)
명예회장 조현춘 (전 경북대학교)
김성규 (전 영남대학교)
부 회 장 이동석 (동국대학교, 경주)
이정희 (대구한의대학교)
김한철 (영남대학교)
감 사 전재강 (안동대학교)
서상곤 (영남대학교)
총무이사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무이사 이윤호 (대구대학교)
편집이사 손정식 (경운대학교)
복지이사 성희자 (경북대학교)
불교역사위원회 김남경 (경북대학교)
불교문화위원회 김경회 (대구대학교)
불교사회위원회 이준일 (대구보건대학교)

법륜 불자 교수회 일동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 공동체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장 김성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월 8일, 15일,
23일, 30일 사재일에는 오계를 꼭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계를 받고 사재일에
오계를 지킴으로 스스로 불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 불교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명상·힐링 상담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참선수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참선 철야 수련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www.tongsub.com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Tel 053) 621-2256